

200자 안내

블룸즈버리 어웨이크닝

이동일 지음

현재 런던대학에서 고대 서사시 「베이오울프」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저자가 여류작가 버지니아 울프와 세계적 경제학자 케인즈 등으로 구성되었던 지식인들의 독서모임인 「블룸즈버리(지명) 자작」에서 자극을 받아 영문학상의 중요한 주제와 토스트를 다룬 책. 「태초에」 「본능적 충동」 「여자」 「에피퍼니(깨달음)」 「앎에 대한 열망」으로 장을 나눠 고전 영문학에 숨겨진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백향목 / A5신 / 304면 / 4700원

흔들리는 女子

노만 클라인 지음 / 박혜선 옮김

「선샤인」이란 작품으로 국내독자들과도 친숙한 미국의 여류작가의 작품으로 원제는 「Coming to Life」. 한 남자의 여자로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과 동시에 가정에 묻혀 살아가는 주인공 잉그리드의 심리적 변화를 따라가면서, 현대사회를 사는 여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

정암문화사 / A5신 / 278면 / 4500원

대륙사상의 뿌리

채덕귀 외 지음 / 김영범 옮김

상해의 고적출판사가 출판한 원본의 번역본인 이 책은, 중국 사상사에 나타난 위대한 사상가들 가운데 10명을 추려 그 업적과 사상적 공헌, 그리고 그들의 개성과 처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두루 살피고 있다. 저자들이 선정한 10대 사상가는 장자를 비롯해 노자, 순자, 맹자, 공자, 동중서, 주희, 왕수인, 황종희, 왕부지 등이다. 말길 교양강좌 시리즈의 두번째권.

말길 / A5신 / 238면 / 4500원

단학 신선전

최창록 옮김

대구대 국어교육과 교수인 저자가 크게 「朝鮮殊異傳」 「中華列仙傳」으로 나눠 노장사상에

입각해 우리와 중국의 인간철학을 소개한 책. 제1부는 조선의 단학계통에 있어서 명인들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을 고증자료에서 찾아내온 것이고, 제2부는 중국 명인들의 자취를 부담없는 이야기형식에 담은 글들로 구성돼 있다.

동화문학사 / A5신 / 272면 / 5000원

바다는 기러기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

오건석 지음

현 해군대령으로 함대사령부 전대장인 저자가 1년 3개월동안 구축함의 함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바다와 해군들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기록한 함상일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바다에 얹힌 신화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자연현상 등을 묘사하기도 하는 저자는, 함상생활의 애로사항과 함께 함장으로서 부하에 대한 진한 사랑,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 등의 감정을 꾹꾹없이 기록했다.

천지서관 / A5신 / 272면 / 4800원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법

헤롤드 셔먼 지음 / 유창위 옮김

자기계발에 관한 저서를 여러권 펴낸 바 있는 저자의 성공을 위한 인생의 지침서. 저자 자신이 첫 스페치에 실패한 것이 동기가 돼 강연가로 나선 경험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실패할 운명을 성공적인 삶으로 뒤바꾼 15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왜 실패했는가를 철저히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란 게 저자의 성공 전략.

글사랑 / A5신 / 348면 / 6000원

향연, 사랑의 신 에로스에게

플라톤 지음 / 강월도 각색

「플라토닉 러브」란 용어를 탄생시킨 플라톤의 「향연」을 한성대 철학과 교수인 저자가 각색한 것으로, “이 각본은 원본보다 짧고, 「향연」의 기본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 쉽게 구성”했다. 2막 4장의 이 희곡을 쓴 저자는 「어쩐지 돌연변이」「뻔데기전」「이승의 죄」 등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수필 「철학과 사랑」 「예술과 여성」이 권말에 덧붙여졌다.

예니 / A5신 / 78면 / 2900원

競爭秩序의 維持와 知的所 有權法

정상조 외 지음

지적소유권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지적소유권의 남용규제에 대한 협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이 연구원의 정상조씨와 최성근씨가 공동연구한 바를 정리한 이 책은, 서론에서 지적소유권법의 경제적 기능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및 내재적 한계를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관련된 외국법제를 고찰한 후, 제3장과 4장에서는 협행 독점규제법과 지적소유권법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 A5신 / 154면 / 2600원

영업관리 채권관리 이렇게 한다

송완용 옮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안고 있는 과제인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회전기간의 제고를 주제로한 이 책은, 그동안의 채권관리 책들과는 달리 이론적 접근과 실무절차를 골고루 다룬 것. 쌍용양회에서 16년간 실무자로 활동했고, 쌍용그룹 중앙연수원소속 강사로 출강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한 저자는, 예방차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보여준다.

감진 / A5신 / 294면 / 6000원

우리를 껴안으시는 하나님

하정완 지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혼돈에 노출된 젊은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치는 문제들, 즉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종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대중음악에 배인 사탄숭배 의식에 관한 문제, 이성간의 사랑의 감정, 폭력을 대화로 푸는 방법 및 그동안 성경에서 금기시되었던 부분들을 성경을 토대로 하여 복음적인 방법으로 풀고 있다. 저자는 현재 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육목사로 재직중.

나눔사 / A5신 / 216면 / 3800원

팬텀 (1·2)

딘 R. 쿤츠 지음 / 정태원 옮김

모던 호러의 거장 가운데 한사람으로 불리는 작가의 공포소설. 어느날 미국 스노필드란 작은 마을의 주민 5백명이 하룻밤 사이에 살육당한다. 단서라고는 무참하게 살해당한 시신들과 욕실 거울에 써어진 「태고의 적」이란 글자뿐. 조사차 나온 군인들마저 희생을 당하는데, 마을의 유일한 여의사 제니퍼와 그녀의 동생 리사, 그리고 보안관 해먼드는 「태고의 적」과 필사적 싸움을 벌이는데…….

한나라 / A5신 / 각 328면 내외 / 각 5000원

재미있는 법률가 세계

양혜정 지음 / 최달수 그림

무한한 가능성은 지닌 어린이들에게 과연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나는 무엇이 될까 시리즈’ 가운데 첫째권. 법률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 역사상 훌륭했던 법률가는 누구였으며, 법률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이 책은, 재밌는 그림도 곁들여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두번째권은 「재미있는 의사세계」.

동학사 / A5신 / 238면 / 4000원

아이들의 왕

아청 지음 / 박소정 옮김

‘인간과 자연’이란 주제로 일관된 세편의 작품 「장기왕」「나무왕」「아이들의 왕」을 모은 작품집. 작가는 84년 「상하이 문학」에 「장기왕」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중국의 신예작가로 짧은 경력과 과작에도 불구하고 중국문단의 선두주자로 손꼽힐 정도의 역량을 자랑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어찌보면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는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작가의 작품세계는 특히 대만의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성의샘 / A5신 / 256면 / 4000원

예수

오병학 지음

‘푸른성서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인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른 전기. 예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등의 사건을 마치 소설처럼 풀어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 큰 특징. “그리스도의 진리는 깊은 사색이나 명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게 저자의 말.

예찬사 / A5신 / 348면 / 5500원

교육학총론

노회관·이용남 옮김

교육원리, 교육사, 교육철학 등 교육의 기초와 교육의 과정을 교육학자들이 나눠 집필한 책. 「교육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기존의 교재 집필방식에서 탈피할 길은 없는가」 「각 분야의 집필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출판된 이 책은, 교육학 개론서로서 뿐 아니라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에게도 일독을 권할 만한 것으로 읽힌다.

교육과학사 / A5신 / 542면 / 11,000원

Excel 4.0

조창대 지음



원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능가하는 뛰어난 기능과 편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엑셀을 초보자들도 쉽게 익히도록 꾸민 책. 각장에서 개괄적인 설명과 각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책의 순서대로 엑셀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편집했다.

크라운/A5신/594면/12,000원

계간지

현대시사상 (93년 봄)

(기획) 중남미 포스트모던 시 ▲대표시 : 옥파 비오 빠스 ▲중남미 포스트모던 시, 그 결산과 전망(민용태) ▲중남미 포스트모던 시 논의의 몇 가지 문제점(김홍근) ▲반복 속에 숨겨둔 존재론적 음성 : 호세 에밀리오 바체꼬(황병하) ▲보르헤스와 세르반떼스(최낙원) ▲새로운 불안정성(세베로 사르두이) (시) 김춘수/정진규/김시태/최승호/김정란/김혜수/이만식/김하인 (해외시) 페터 한트케 (서평) ▲버려진 희망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위해(이진우) ▲내면성의 두 가지 풍경(김용희) (상징사전) 수의 상징과 해석(셀로트) 고려원/A5신/188면/3500원

소설과 사상 (93년 봄)

(특집) 한국소설과 민족주의 ▲신여성의 비극적 생활사(오양호) ▲「大河」 1·2부의 재해석(조남현) ▲해방공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화론(서경석) ▲60년대 한국소설과 민족주의(홍기삼) (논문) 중국·한국·일본, 「小說」의 개념(조동일) (장편소설) 전상국/현길언 (단편소설) 강병석/채희문/이승우 (소설평) ▲이인성의 화법에 대하여(김인환) ▲새로운 현실과 현실주의 소설의 자리(류보선) (소설의 인물유형 탐구) 희생양, 파르마코스(김만수) (해외 소설이론) ▲젊음의 근대성과 그 한계(변창구) ▲私小說의 비평과 연구(오상현) 고려원/A5신/386면/5500원

詩와 詩學 (93년 봄)

(권두칼럼) 시와 신화(김열규) (시와 시인을 찾아서 5) 김남조 편/대담/대표 시선 (이 시인을 주목한다 1) 복효근, 쑥을 캐면서 와 10편

[시창작 강좌 1] 나의 시 이렇게 쓴다 ▲강하고 깊고 단순하게(이수익)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 위하여(강은교) ▲쓰레기처는 사람들의 사연(김광규) ▲혼 속에 울리는 발걸음을(문충성)

[특별연재] 시로 쓰는 자서전 9(조병화)

[현대시인 집중연구 9] 신경림 시인편 ▲내가 아는 신경림(현기영)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이은봉) ▲문학적 자전(신경림) ▲민중적 상상력의 양식화와 리얼리즘의 탐구(박윤우) ▲신경림의 「남한강」 혹은 삶과 세계의 서사적 탐색(민병욱) ▲치열한 민중의식과 준열한 서사의 힘(윤호병) 신경림 대표시·연보·연구서지

시와시학사/A5신/304면/5000원

철학과 현실 (93년 봄)

(특집) 새 정권에 바란다 ▲‘안정속의 개혁’ 인가 ‘개혁을 빙자한 안정’ 인가(박호성) ▲자원낭비 없는 사회(강철규) ▲신한국 창조와 ‘문화민주주의’(이진우) ▲무엇이 국민을 뛰게 하는 힘인가(박은정)

(철학자가 보는 오늘) 도덕성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손봉호)

(동예) 책의 해 : 구경문화가 결과하는 생각기 피증과 영상 중독증(정대현)

(고전철학특강) 로크의 「정부론」 : 어느 자유주의자의 혁명정당화론(정연교)

(현대철학특강) 모리스 메를로 풍티(김홍우)

(대담) 러시아 철학계의 대변자 알렉산더 파닌교수(엄정식)

(청소년철학교실)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황경식)

철학문화연구소/A5신/392면/5000원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일을

도모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유익을

드리는 동반자입니다

헵시바가 개발한 프로그램 및 아이템들

- 헵시바한글다듬기 프로그램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컨버전 프로그램 ● 색인의 무제한화 ● 외국어 교정
- 전집류의 용어 통일 작업 ● 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한 동시작업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전화 265-9240, 1 · 팩스 263-1992

여기 | 전산사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200자 안내